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한양이엔지(045100)

기타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윤선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19.09.05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이엔지(045100)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링 기업,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 확장 중

기업정보(2021/12/14 기준)

대표자	김형욱, 김덕림
설립일자	1988년 07월 11일
상장일자	2000년 08월 31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주요제품	건축종합설비설계, 반도체설비/반도체 제조장비, 화학약품 중양공급장치 제조

시세정보(2021/12/20 기준)

현재가	15,6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2,808억 원
발행주식수	18,000,000주
52주 최고가	22,000원
52주 최저가	14,100원
외국인지분율	3.37%
주요주주	
김형욱 외 6인	45.60%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 영위 중

한양이엔지(이하 동사)는 1882년 한양기공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현 상호로 변경하였다. 동사는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총 7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특수 배관 설비 및 CCSS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플랜트 및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 중이다. 동사의 매출은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74.1%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중 내수 비중이 82.2%를 차지하고 있다.

■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사업 다각화

동사는 1990년대 후반 KSR-Ⅲ의 기반설비 개발에 참여하며 우주항공 산업에 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여 다양한 시험설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를 맡아 수행하였다. 더불어, 우주항공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발사체에 연료와 가스, 전기 등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장치인 엠빌리칼의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하여 3D 프린팅 기법의 1t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기를 개발하였다. 동사는 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2021년 동사의 최대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동사의 투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사의 사업군이 속한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의 시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품의 설계에서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추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7,887.9	10.5	970.3	12.3	761.1	9.6	28.0	16.8	57.6	4,228	17,528	2.9	0.7
2019	7,721.0	-2.1	333.8	4.3	295.4	3.8	9.3	5.9	61.6	1,641	18,792	7.5	0.7
2020	7,584.7	-1.8	533.5	7.0	481.3	6.3	13.9	9.0	48.1	2,674	21,129	6.4	0.8

기업경쟁력

반도체/디스플레이 엔지니어링 사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고순도 특수 배관 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 제공
- 일반산업, 가스,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 CCSS의 제조·설치 및 유지보수 담당

우주항공 분야 설비 개발

- 누리호의 총 9종의 추진기관 시험설비 중 7종의 시험설비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발사체의 탑재품인 엄빌리칼의 부품 개발
- 3D 프린팅 기법의 1t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기 개발 참여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주요 핵심기술

- 초고순도 배관 공사 전 과정 국산화
- 화학물질 공급장치인 CCSS의 국산화
- 초정밀 화학물질의 입고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통합 시스템인 TCMS 구축

동사의 사업분야



시장경쟁력

세계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년	1,411억 달러	연평균 9.8% ▲
2023(E)	2,448억 달러	

- 엔지니어링 산업은 시설물에 대한 연구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산업을 일컬음.
- 엔지니어링 산업은 공급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음.
-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수요가 점차 증가해 왔음.
-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시설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제조설비, 폐수처리 설비, 폐수 재이용 설비를 제공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함.
- 동사의 임직원들은 하천 생태보전을 위해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함.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한누리 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동사는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안전평가, 유해물질 관리, 안전 교육 이수 학점제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동종업계 대비 낮은 산업재해율을 유지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공개하여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민원 창구인 HY 두드림을 운영하여 임직원과 협력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사는 주주이익환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3.32%임.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반도체 기계설비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진출

동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를 진행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편, 제조시설의 자동화·지능화 추세에 따라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로 인하여 동사의 매출도 소폭 감소하였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1882년 한양기공으로 개업한 뒤 1988년 한양엔지니어링(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1999년 현 상호로 변경하였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0년 상장되었다. 동사는 현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FAB 설비에 필수적인 초고순도(Ultra High Purity, UHP) 특수 배관 설비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이하 CCSS)제조를 비롯하여 일반산업플랜트, 바이오제약플랜트, 정밀화학 및 전자재료 산업설비, 태양광 관련 제조시설 등과 원자력발전설비 및 우주항공분야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동사는 현재 총 7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개는 해외 설비공사를 위한 동사의 해외법인(베트남, 미국, 중국, 싱가포르)이다. 이외에 동사의 종속회사는 CCSS의 운영관리를 하고있는 에이치씨엠(주), 소프트웨어 제작 및 건축, 배관 설계를 하고있는 (주)디노, 중국 대련에서 기타 건물설비 설치공사를 영위 중인 한양건설(대련)유한공사가 있다.

동사의 주주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대표이사 김형욱을 비롯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6인이 동사 지분의 45.60%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비율은 3.35%이다.

[표 1] 동사의 종속회사 현황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에이치씨엠(주) (구.한양씨엠에스(주))	2009. 07. 01	경기도 화성시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 운영관리
한양건설(대련)유한공사	2004. 10. 13	중국 대련	기타 건물설비 설치공사
(주)디노	2017. 10. 31	경기도 용인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건축, 배관설계
한양이엔지 베트남 법인	2008. 04. 04	베트남 호치민	기타 건물설비 설치공사
한양이엔지 미국 법인	2009. 01. 02	미국 텍사스	반도체 설비공사
한양이엔지 시안 법인	2013. 12. 23	중국 시안	반도체 설비공사
한양이엔지 싱가포르 법인	2019. 11. 19	싱가포르	반도체 설비공사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 현황

동사는 엔지니어링 사업부와 시스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부는 IT 사업부와 EPC 사업부로 구분되어 있다. IT 사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초고순도 특수 배관 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EPC 사업부는 일반산업, 가스, 바이오, 환경, 우주항공 분야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사업부는 FAB 설비 등에 적용되는 CCSS를 제조·설치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다양한 초고순도 특수가스가 사용된다. 민감한 공정 특성상 제조 수율에 있어 순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초고순도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특수 표면 처리된 배관이 필요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 초고순도 배관 공사는 해외기술에 의존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동사는 초고순도 배관 공사 전 과정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동사는 배관 내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배관을 절단하고, 내부 진공 공정을 통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이외에도 공장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D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접근성, 운전성, 유지 보수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시공 단계에서의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림 1] 초고순도 배관 특수설비



*출처: 동사 IR 자료

CCSS는 산화(Oxidation),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에칭(Etching), 증착(Deposition) 등 각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원액 또는 혼합액을 공급하는 장치로 반도체 및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장치이다. 동사는 1996년 CCSS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동사의 CCSS는 설계, 제조, 검사, 설치 단계 전반에 걸쳐 엄격한 품질 표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품질제공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TCMS(Total Chemical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화학물질의 입고, 관리, 검사, 저장,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 CCSS 장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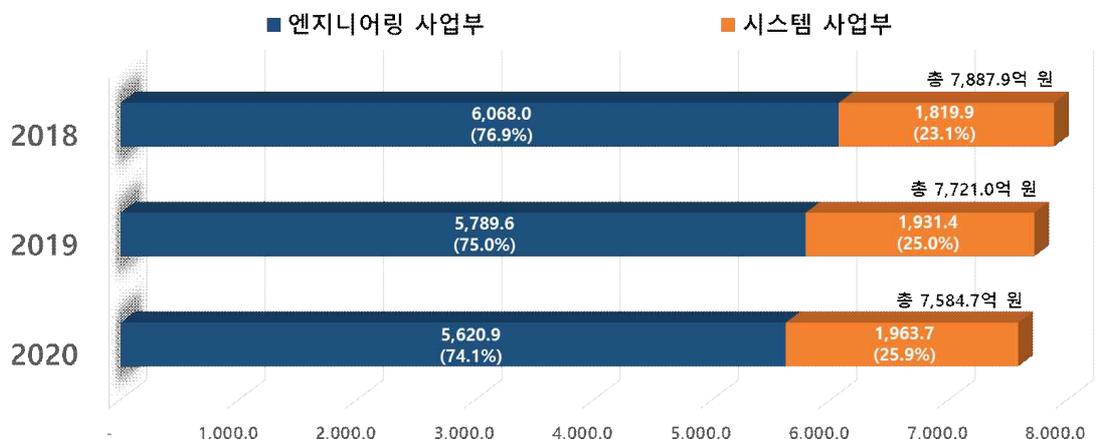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매출 현황

동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에 신규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의하면,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7,887.9억 원, 2019년 7,721.0억 원, 2020년 7,584.7억 원으로 3개년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동사의 2020년 기준 매출 비중은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74.1%, 시스템 사업부가 25.9%로 동사의 매출은 엔지니어링 사업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018년 76.9%, 2019년 75.0%, 2020년 74.1%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동사의 이러한 매출 변화는 동사의 사업이 전방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동사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동사의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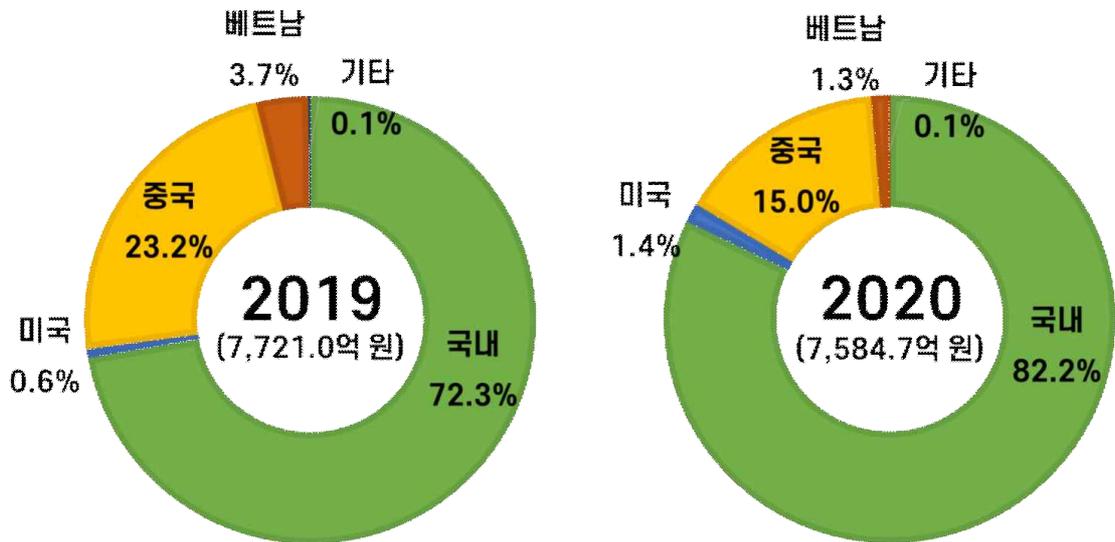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2020년 연결기준 동사의 국가별 매출 비중은 국내 82.2%, 중국 15.0%, 미국 1.4% 순이며, 국내 중심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동사의 2020년 중국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8.2%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 한양건설(대련) 유한공사 및 한양이엔지 시안법인을 설립하여 OLED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최근 2개년간 국가별 매출 비중

(단위: %,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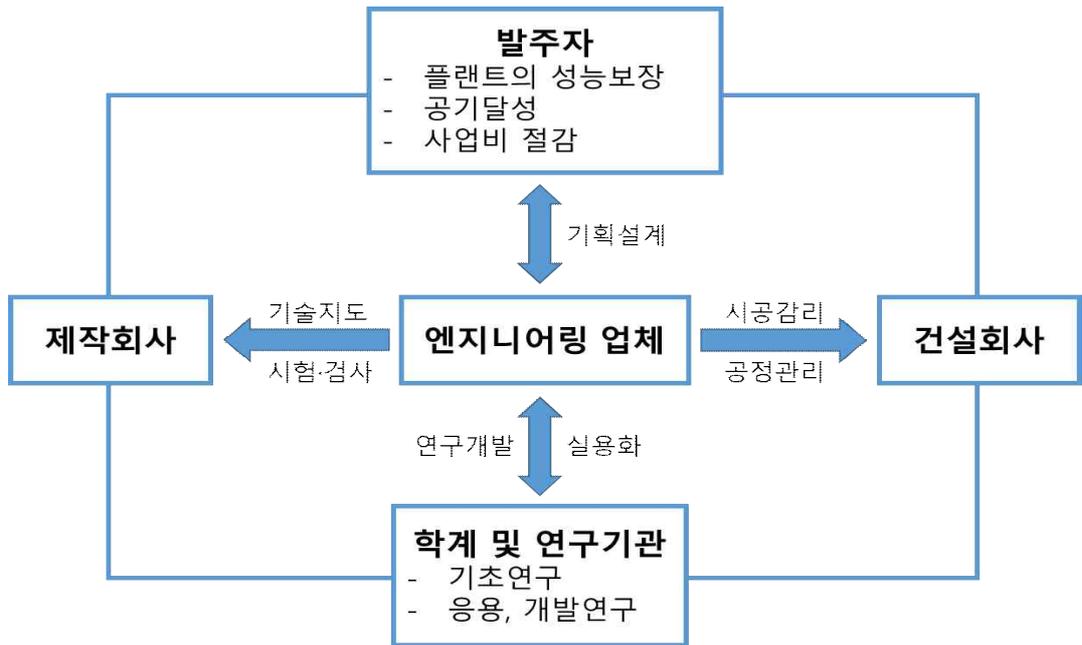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 엔지니어링 산업의 동향 및 시장규모 전망

엔지니어링 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엔지니어링기술은 기존의 개발된 기술을 생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화하는 기술로, 설계기술, 제작·시공기술 등의 기술노하우부터 타당성조사, 구매조달, 시운전 등의 사업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용역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엔지니어링 산업은 핵심기자재 공급업체, 설비제조업체, 시공 및 건설업체, 클라이언트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질 또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5] 엔지니어링 업체의 산업상 위치



*출처: 엔지니어링 30년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04),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ENR(Engineerng New Record,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월간지)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산업분야를 일반건축, 산업공정, 제조, 수자원, 하수/폐기물처리, 교통/운송, 위험/유해 폐기물, 전력, 석유, 통신,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품조립, 반도체 제조, 전자부품 공장, 우주항공 등의 사업은 제조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동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 배관 설비 및 우주항공 관련 설비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므로, 엔지니어링 산업분야에서도 제조분야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엔지니어링 산업분야에 대한 ENR 분류체계

기업명	내 용
일반건축 (General building)	상업용 건축물(소매, 사무실, 은행), 정부청사, 교육시설, 교도소, 보건 의료시설, 보급시설, 창고, 호텔, 모텔, 컨벤션센터, 복합거주시설, 스포츠센터, 오락시설, 테마파크, 카지노, 종교 및 문화시설, 기타
산업공정 (Industrial process)	철강 및 비철금속, 화학(비석유), 약품, 식품음료처리, 펄프 및 제지공장, 기타
제조 (Manufacturing)	부품조립, 반도체 제조, 전자 부품 공장, 우주항공, 기타
수자원 (Water supply)	수처리, 담수화 플랜트, 수송라인, 수로, 댐, 저수지, 기타
하수/폐기물 처리 (Sewerage/solid waste disposal)	위생, 하수도, 폐기수처리 플랜트, 고체폐기물, 기타
교통/운송 (Transportation)	고속도로, 교량, 항만 및 해운시설, 공항(터미널포함), 대량 운송, 경찰도, 철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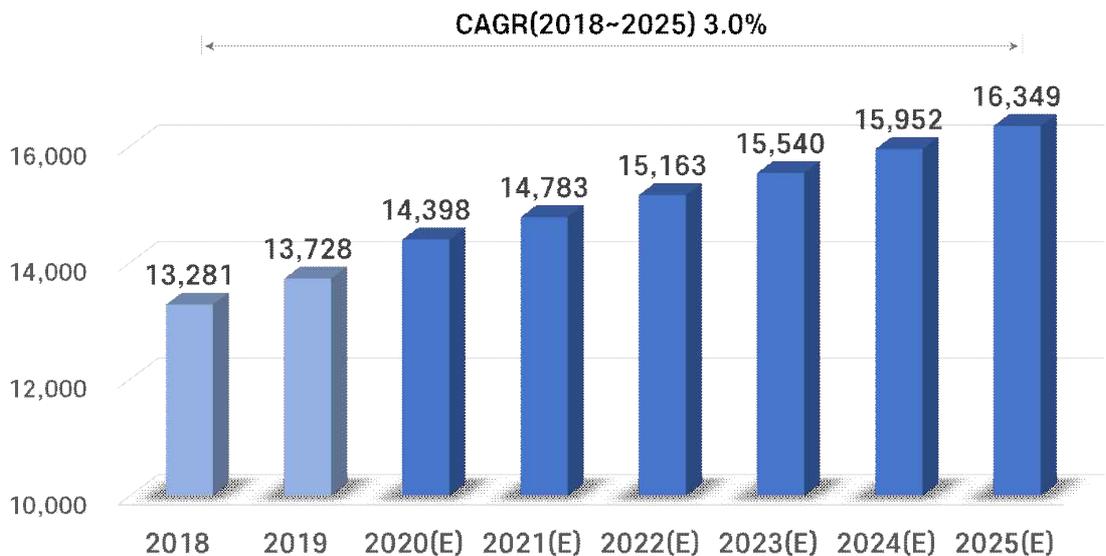
위험/유해 폐기물 (Hazardous waste)	화학 및 토양 개선, 핵폐기물, 석면 & 납 경감, 대기정화, 용지 감정, 기타
전력 (Power)	화석연료 플랜트,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플랜트, 수력발전 플랜트, 열병합발전 및 폐기물 연료, 배전, 유지관리, 기타
석유 (Petroleum)	정제 및 석유화학 플랜트, 파이프라인, 연안 및 수중설비, 유지(turnaround 포함), 기타
통신 (Telecommunications)	송출라인, 케이블, 타워 및 안테나, 데이터 센터, 기타
기타 (Other)	광물(mining), 기타

*출처: 엔지니어링산업백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3), NICE디앤비 재구성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아시아의 교통·인프라·에너지 투자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점차 증가해 왔으며, 북미·유럽 등의 선진시장에서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주요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자료(2020)에 따르면, 세계 엔지니어링 산업은 2018년 1조 3,281억 달러에서 연평균 3.0% 성장하여 2025년 1조 6,349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세계 엔지니어링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ENGINEERING INSIGHT,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020),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제조에 적용하여 제품 설계에서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Markets&Markets(2019)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 시장규모는 연평균 9.8% 성장하여 2018년 1,411억 달러에서 2024년 2,44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은 2018년 81억 달러에서 연평균 11.4% 성장하여 2024년 153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국내외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Smart Factory Market, Markets&Markets(2019),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동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엔지니어링사업, CCSS 제조·설치사업 및 기타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 중이다. 현재 동사와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주)SK하이이엔지, (주)성수이엔지, (주)에스티아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주)SK하이이엔지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로 2001년 설립되었다. (주)SK하이이엔지의 대표사업은 반도체설비운영사업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를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기설비운영, 환경소방설비운영, 초고순도 배관공사, 각종 건설공사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종합건설사로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성수이엔지는 2010년 설립된 회사로, 각종 유틸리티·가스·화학물질 배관 시공 및 CCSS, DI Water System, 클린룸 시공을 전문으로 설계 및 제작하는 업체이다. 2020년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등의 설비공사를 맡아 시공하였으며, 2011년부터 SK실트론에 CCSS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주)에스티아이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에스티아이의 주요 제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CCSS, Wet System(현상, 세정, 식각 system) 등이 있으며, CCSS 부문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 현재 CCSS 시장은 (주)에스티아이와 동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주)에스티아이는 반도체 부문에서 후공정용 Reflow 장비와 화학물질 혼합 장비를 개발하여 매출 가시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SK하이이엔지*, (주)성수이엔지*(*상기 두 업체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에스티아이의 2020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주)SK하이이엔지가 2,914.8억 원, (주)성수이엔지가 171.7억 원, (주)에스티아이가 2,691.0억 원, 동사가 7,584.7억 원으로 동사의 매출액이 가장 큰 수준이다. 한편, 2020년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주)SK하이이엔지가 2.8%, (주)성수이엔지가 5.5%, (주)에스티아이가 5.7%, 동사가 7.0%로 수익성 또한 동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경쟁사 분석

기업명	업체 현황	2020년 매출액(억 원)
(주)SK하이이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설립 반도체설비운영, 전기설비운영, 환경소방설비운영, 초고순도 배관공사, 각종 건설공사 주요고객사: SK하이닉스 등 	2,914.8 (전년대비 3.8%▼)
(주)성수이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설립 각종 유틸리티·가스·화학물질 배관, CCSS, DI Water System, 클린룸 시공 주요고객사: SK실트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등 	171.7 (전년대비 19.4%▲)
(주)에스티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설립 CCSS, Wet System 제조 및 판매, CCSS 분야 동사와 시장 양분 주요고객사: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2,691.0 (전년대비 11.3%▼)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2년 설립 초고순도 특수 배관 설비, CCSS,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요고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7,584.7 (전년대비 1.8%▼)

*출처: 각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누리호 시험설비와 발사대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역할 수행

동사는 1990년대 후반 국내 첫 액체연료 발사체인 KSR-Ⅲ의 기반설비 개발에 참여하며 우주항공산업에 진출하였다. 이후 인공위성 시험설비 구축이나 전투기의 연료기 사업에도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대 시스템 중 추진체 공급시스템과 지상 기계설비의 공압부분을 구축하고 운용 지원하였다.

동사는 나로호의 발사대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누리호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동사는 반도체 기계설비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나로우주센터에 다양한 설비 중 터보펌프와 연소기, 엔진 지상, 엔진 고공 등의 시험설비 구축을 맡았으며, 특히 9종의 추진기관 시험설비 중 7종의 시험설비 구축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시험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체연료 발사체 설비기술은 초저온(-196℃), 초고압(400기압), 초정밀, 초정밀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운영기술로 국내 우주산업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상 설비는 구축하는데 약 300억 원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한번 구축하면 추가 설비 제작 수요가 많지 않으며, 성능개량 및 운영 서비스만으로는 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사는 발사체 탑재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사는 발사체에 연료와 가스, 전기 등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장치인 엄빌리칼(Umbilical) 개발 프로젝트의 수주에 성공하여, 열제어 안전시스템, MTU커넥터, 고압 솔레노이드 밸브 등 다수의 부품을 공급하는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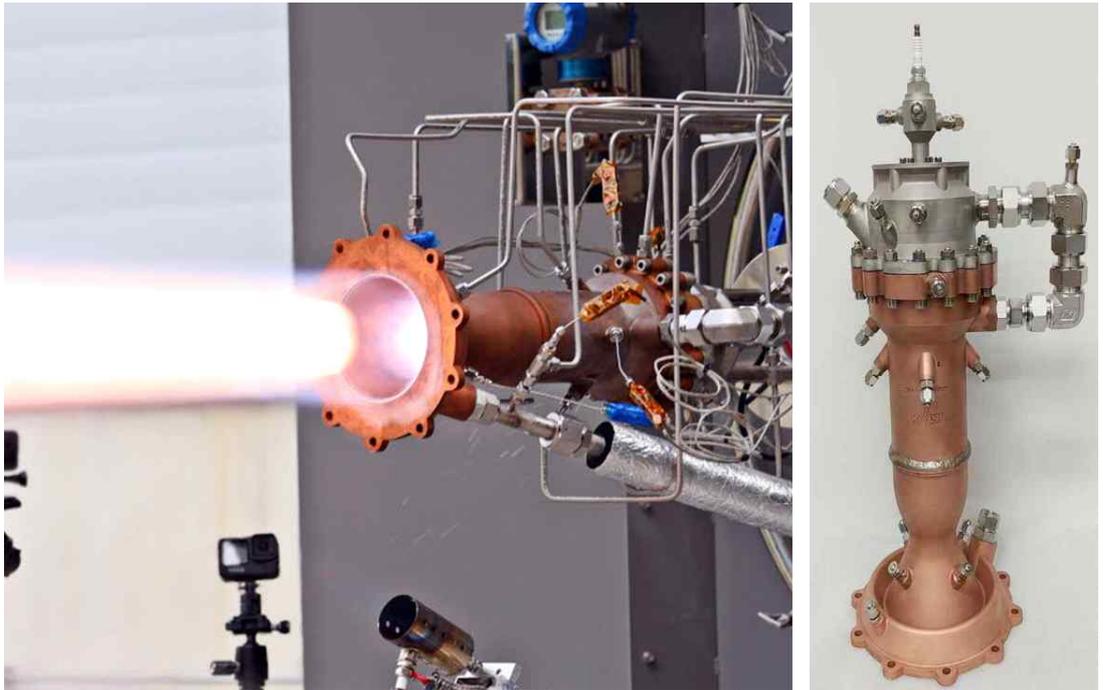
[그림 8]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및 동사가 개발한 부품들



*출처: 동사 홈페이지, 경향신문 보도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블로그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1t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기를 개발하였다. 연소기는 뜨거운 화염을 만들어내는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 이번에 개발한 메탄엔진 연소기는 구리소재를 3D 프린팅하여 제작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3D 프린팅 방법은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SLM)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녹여 형태를 잡는 기법이며, 국내에서 구리를 연소기 적층 제작에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기계가공에서는 복잡한 내부 구성품을 개별 제작해 조립·접합하던 방식이었으나 3D 프린팅 제조 공정에서는 이들을 통합해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 제작 기간을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동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9] 3D 프린팅 방법을 이용한 1t급 액체메탄 엔진 연소기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블로그

[그림 10] SWOT 분석

Strength

- 초고순도 특수 배관 공사 및 CCSS 국산화 성공
-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항공우주 분야 사업 확대
- 업계의 높은 인지도 확보

-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라인 투자 계획 발표에 따른 수혜 예상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엔지니어링 산업 시장

Opportunity

Weakness

- 전방 산업 (반도체 제조 산업,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구조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

-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 업체간 입찰 경쟁 심화

Threat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설비 시공과 산업 플랜트, 원자력 발전 설비, 바이오 플랜트 등의 시공 사업을 영위 중이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를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폐수처리 설비, 폐수 재이용 설비 시공을 제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제조설비, 친환경 수처리 설비를 시공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동사는 친환경적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진행해 깨끗한 생태계 보존에 힘쓰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사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한누리 봉사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김장 나눔 봉사를 시작으로 난방용품 나눔, 아동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사는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으로 삼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관리, 유해물질 사용 현장의 모니터링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Near miss report를 작성하고 안전 교육 이수 학점제를 통해 임직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동종업계 대비 낮은 산업재해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동사의 동종업계 대비 산업재해율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9.7%로 동 산업(F42, 전문직별 공사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인 17.6% 이하로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남성 근로자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799	461,343	7.0	5.2	42,103	42,720
여	86	98,252	6.3	5.0	30,700	33,192
합계	885	559,595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정확한 공시와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동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사와 임직원들의 민원 창구인 HY 두드림을 운영하여 고충과 제안을 제보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작성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밀로 처리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해 2013년부터 8회 연속으로 결산 배당을 시행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3.32%이다.

[표 5]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45.60
사내/사외	3/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47.47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2020년 전년에 이어 외형정체 지속, 2021년 3분기 반등 가시화

불안정한 세계 경기 및 전방산업의 업황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최근 2개년간 외형정체를 나타냈으나, 2021년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 사이클 전망에 따라 외형 반등 추이를 나타냈다. 한편, 수익인식시기 및 원가부담변동 등으로 수익성은 등락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업계 평균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주력사업인 엔지니어링 사업부 내 반도체 실적에 따라 매출 외형 결정

동사는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와 반도체설비공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업부 문은 크게 엔지니어링 사업부와 시스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부는 재차 IT 사업부문과 EPC 사업부문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IT 사업부문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초고순도 특수 배관 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EPC 사업부문은 일반 산업, 가스, 바이오, 환경,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업부문에서는 FAB 설비 등에 적용되는 CCSS를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엔지니어링 사업부의 매출비중은 2018년 76.9%, 2019년 75.0%, 2020년 74.1%로, 상기 사업 부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IT 사업부문의 반도체 산업군이 동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최근 2개년간 외형정체 지속. 이후 2021년 3분기까지 반등 추이 가시화

2017년까지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지속한 바, 2018년 전년 대비 10.5% 증가한 7,887.9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가 축소되기 시작하며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 또한 전반적으로 하강국면에 직면하기 시작한 바, 2019년 전년 대비 2.1% 감소한 7,721.0억 원, 2020년 전년 대비 1.8% 감소한 7,584.7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며 매출 성장세는 일단락되었으며 7,000억 원 대의 실적에서 매출 외형은 정체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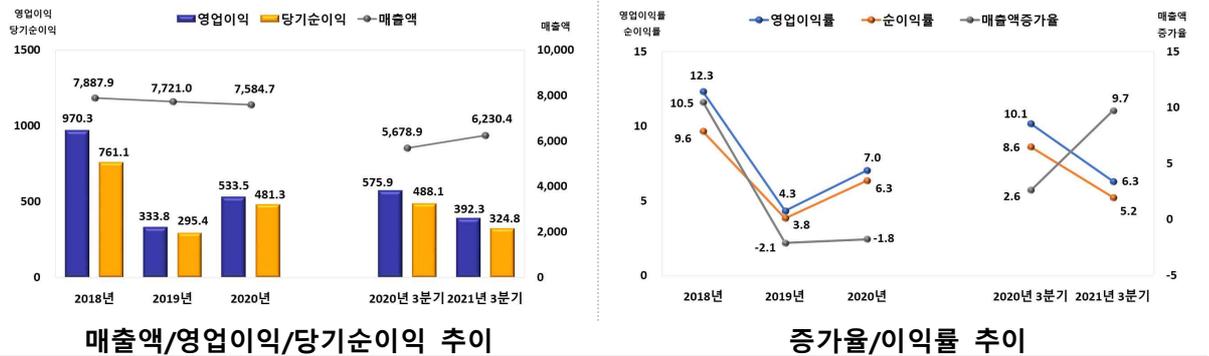
한편, 반도체 산업군이 속한 엔지니어링 사업부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4,310.0억 원 대비 30.4% 증가한 5,621.0억 원을 기록한 바,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5,678.9억 원 대비 9.7% 증가한 6,230.4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반등 추이를 나타냈다.

■ 최근 3개년간 수익성 등락세, 이후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저하 추이

2018년 외주비용이 매출규모 대비 감소하며 원가부담이 크게 완화된 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2.3%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투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해 해당 부분의 수익 인식이 누락되었고,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미중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불안에 따른 고객사의 투자 지연 및 업체간 입찰경쟁 심화로 인한 이익 감소로 전년 대비 하락한 4.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전년에 인정받지 못한 이익분의 정상적인 인식 및 외주비 등의 지속적인 원가절감활동을 통해 영업이익률이 재차 반등하여 7.0%를 기록하였는 바, 최근 3개년간 수익성이 등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엔지니어링사업부의 원가부담 가중으로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392.3억 원(-31.9% YoY), 매출액영업이익률 6.3%(-3.8%p YoY)를 기록하였고, 상기 영업수익성 변동의 영향으로 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도 각각 324.8억 원(-33.5% YoY), 5.2%(-3.4%p YoY)를 기록한 바, 전반적인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저하 추이를 보였으나 여전히 업계 평균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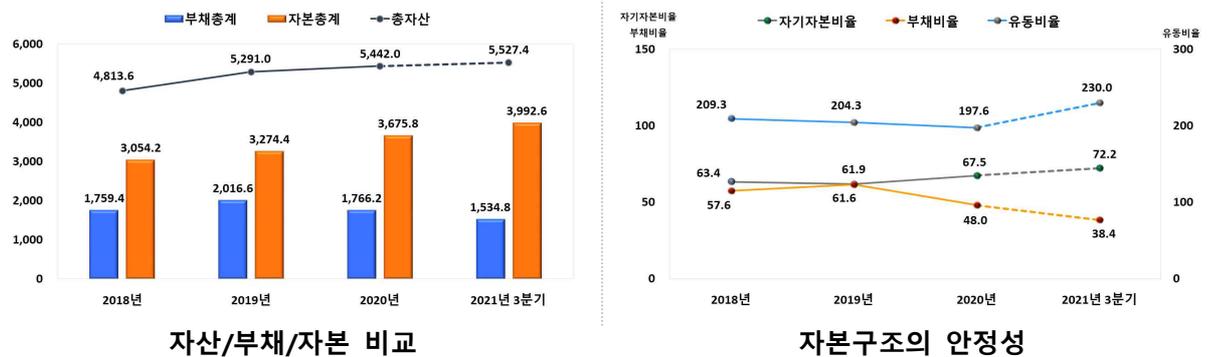
■ 최근 3개년간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2018년, 2019년, 2020년 부채비율이 각각 57.6%, 61.6%, 48.0%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평균 55% 내외 수준을 기록하였는 바, 오랜 사업기간 누적된 이익잉여금 및 외형 대비 낮은 부채부담을 바탕으로 주요 안정성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차입성 부채 또한 2020년 기준 0.1% 미만을 기록하였는 바, 여신 사용 관련 재무리스크도 매우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1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38.4%, 자기자본비율 72.2%를 기록하였고, 차입금의존도 또한 전년 말에 이어 0.1%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결산 이후 3분기까지도 여전히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그림 13]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3분기 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7,887.9	7,721.0	7,584.7	5,678.9	6,230.4
매출액증가율(%)	10.5	-2.1	-1.8	2.6	9.7
영업이익	970.3	333.8	533.5	575.9	392.3
영업이익률(%)	12.3	4.3	7.0	10.1	6.3
순이익	761.1	295.4	481.3	488.1	324.8
순이익률(%)	9.6	3.8	6.3	8.6	5.2
부채총계	1,759.4	2,016.6	1,766.2	1,875.5	1,534.8
자본총계	3,054.2	3,274.4	3,675.8	3,694.2	3,992.6
총자산	4,813.6	5,291.0	5,442.0	5,569.7	5,527.4
유동비율(%)	209.3	204.3	197.6	218.3	230.0
부채비율(%)	57.6	61.6	48.1	50.8	38.4
자기자본비율(%)	63.4	61.9	67.5	66.3	72.2
영업현금흐름	448.9	339.7	744.2	672.8	-169.7
투자현금흐름	-98.0	-169.3	179.3	310.5	-105.5
재무현금흐름	-90.1	-8.0	-207.4	-184.6	-115.4
기말 현금	448.7	612.8	1,324.0	1,424.6	962.3

※ 3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전망

주요사업의 견고한 입지 및 거래처와의 긴밀한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 전망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로부터의 꾸준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주 거래처의 대규모 설비투자 관련 수주로 향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우수한 기술력 및 신인도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당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로부터 기술과 신뢰를 인정받아 신규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일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체 기술 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반도체 초고순도 배관 설비 분야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당 분야는 세계 경기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변화에 민감하고 종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국산화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되고 있는 바, 당사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 삼성전자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 수혜 관련하여, 외형정체 벗어나 재차 성장세가 시화될 것으로 전망

2021년 11월 경 당사의 최대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주 내 170억 달러(한화 기준 약 20조 원, 2022년 착공 예정) 규모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당사는 선제적 조치로 미국법인을 통해 삼성전자 오스틴 FAB 부근의 토지 및 건물에 이미 투자한 바 있으며, 업계 내 우수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어, 상기 대규모 투자 건 관련하여 상당 수준의 투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를 발판 삼아 현재의 외형 정체세를 벗어나 과거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점과 같이 재차 유의미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4]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 12. 14 기준)